



## 지식경제부, 2011년 자동차산업 실적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- 지식경제부는 2011년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,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, 내수는 4/4분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발표함.
  - 상반기에는 지진에 의한 일본 자동차의 공급차질, 수출 전략차종의 투입 확대, 브랜드 도입 효과 등으로 생산(전년대비 9.7%), 수출(15.1%), 내수(5.1%)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함.
  -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과 내수시장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출(12.4%)과 내수(-1.8%) 성장세가 상반기에 비하여 둔화됨.
  
- 2011년 수출 실적의 경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.7%가 증가한 315만 1,930대를 기록함.
  -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수요 회복세와 신흥국의 성장세가 유지되었으며, 중형급 이상 차량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가 상승함.
  - EU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44%(2011년 1~11월) 증가하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시장인 대(對)중국 수출이 51.9% 증가하는 등 EU 및 아시아 지역(34.5%)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.
  - 대지진으로 일본 완성차업체들의 생산라인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음.
  
- 2011년 내수 실적의 경우 업계의 다양한 신차 출시, 신규 브랜드 도입, 수입차의 선전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고유가 부담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1.5% 증가한 157만 9,589대를 기록함.

-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자물가(유가)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4/4분기 국산차 시장은 전년대비 8%나 축소됨.
- 유지비를 강점으로 한 경차, 향상된 연비와 고품질이 장점인 대형차, 실용성을 갖춘 CDV(Car Derived Van)의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, 중·소형차의 점유율은 감소함.
- 수입차의 경우 독일 차종의 선전으로 수입차 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, 특히 한국GM은 신규 브랜드를 도입하면서 11.9%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함.

(2011년 자동차산업 실적, 지경부, 1/11)